

**The History of
Early Christianity**

초대교회사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제목

-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 없는 내면의 투쟁
 - 인간 이상의 차원에 도달하고자 노력
- 타인에 대한 정죄
 - 존 크리소스톰, 밀란의 암브로스
 - 가이사라의 바실, 히포의 어거스틴도 비판의 대상
- 심볼:
 - ‘해골을 응시하는 심술궂은 금욕고행자’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대중이 그를
 - ‘권위 있고 노련한 존재’ 로 여기다
- 고전 학문 숭상
 - “너는 누구냐?”
 - “나는 기독교인입니다.”
 - “너는 키케로주의자이다.”
- 금욕 생활
 - 자기 육체 학대. 극단적 엄격
 - 목욕을 하지 않다
- 히브리어 학습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은자 생활 3년 후 도시 회귀
 - 안디옥 장로로 선출 (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)
 - 다마스스 감독의 권유로 번역
 - 새로운 라틴어 번역
 - 히브리어 --- > 라틴어
- 제롬의 인간 관계
 - 성 혐오 / 몇 명의 여성과 지내다.
 - (‘세상에서 숨기를 바랐던 그의 예민함을 아는 여인’)
 - 다시 수도생활로
 - 학문에 열중하는 **규칙적인 생활**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본격적인 성경 번역
 - 기존의 라틴어 역본
 -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기초
 -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 착수
 - ※ **벌게이트(Vulgate) 성경**
 - 라틴어권의 교회 표준성경
 - 히브리어 시편을 탁월한 라틴어로 번역
- 성경 번역에 대한 반응
 - 환영 받지 못함 ----- 70인 역에 과도한 권위
 - 일부 구절의 표현 변경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**벌게이트 성경**
 - **히포의 어거스틴의 혹평**
 - “그 무엇도 70인역의 권위에 필적할 수 없다”
 - “...이미 알려져 있는 언어(즉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와 라틴어)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사본에 기초를 둔 당신의 번역성경...”
 - ‘박’ (gourd)이라는 표현
 - ivy(담쟁이덩굴)로 번역
 - **펠라기우스파의 교리와 논쟁**
 - (어거스틴의 논지 의존)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히포의 어거스틴

- “나의 하나님, 나 자신을 완전히 당신에게 바치고자 생각했을 때...이를 원한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. 동시에 이를 차마 원할 수 없었던 것도 나 자신이었습니다. 이 두 가지 존재가 다 나였습니다. 내가 완전히 원하지도 못했고 완전히 거부하지도 못했으므로, 나는 스스로와 투쟁했고, 이 때문에 나의 존재는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.”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“집어 들고 읽어라.
집어 들고 읽어라.
집어 들고 읽어라.”
- [“주님, 언제까지입니까?
언제까지 내일 내일하며 지내야 합니까?
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?”]
- “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.”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**일생**
- 출생: 북아프리카 AD 354년
(374년 암브로시우스 감독 선출)
- 부친: 하급관리, 어머니: 모니카
- 마다우라(Madaura)에서 공부
 - 경제적 이유로 귀향
 - “친구들과 함께 향락과 악덕의 도시의 광장들을 방황하며 진흙탕 속에 뒹굴었다.”
- 카르타고에서 다시 공부: 방법론 공부, 진리는 논외.
- 동거녀, 아들(아데오다투스)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키케로를 통한 영감
 - 수사학은 언변의 문제가 아니라,
진리 추구의 문제
- 마니교 입교
 - 진리 탐구를 위해
 - 마니교 - 3세기 페르시아 종교
 - 인간 존재 동향의 두 가지 원리
 - 영적인 것: '빛'
 - 물질적인 것: '어둠'
 - 우주는 '빛과 어둠' 이 영원히 존재
 - 신화적 혼합으로 이해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구원(마니교의)이란 무엇인가
 - 두 가지 요소를 다시 분리하여
 - 영혼(정신, 순수한 빛)으로 귀환
- 실천 강령
 - 생식을 금해야
 - 이러한 교리는 부처, 조로아스터
예수, 마니 자신의
선지자를 통해 계시
- 지중해 연안에 널리 퍼진 마니교
- 천체 관측을 통해 설명 (합리성)
- 기독교와 성서를 물질주의의 표본으로 이해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기독교에서 해결 받지 못했던,
마니교에서 해결 받은 두 가지
 - 1) 성경의 야만적인 부분 즉, 폭력, 강간, 부도덕, 사기 등
의
인간 스토리를 통한 진리의 설명
(마니교의 천체 원리 설명과 대조)
 - 2) 악의 근원에 관한 문제
 - 어머니 모니카의 가르침과 달리,
자기 내면에 언제나 존재하는 '악' 의 근원
 - "하나님이 지존, 순수, 선하신 존재라면 악은 신의
피조물이 아닐 것이며, 반면 만물이 신에 의해 창조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어거스틴의 업적

- 신학의 주된 논거들
 - 성경의 권위
 - 악의 근원
 - 자유의지
- 마니교에 대한 대항
 - 마니교: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
 - 어거스틴: 의지의 자유를 주장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
 - 우리의 결정은 본성의 산물이 아니라, 의지의 산물이므로 자유롭다
 - 상황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
 - 진정한 의미는 상황이나 내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로 인해 결정할 때에만 자유롭다
- 어거스틴의 '악의 기원론'
 - 자유의지론과 악의 기원과의 깊은 관계
 - 1)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선한다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2) 설령 자유의지가 악을 산출할 위험이 있다하더라도 자유로운 것은 선하다
- 3) 악의 기원은 옳지 못한 결정들 속에서 출래
 - ex) 인간과 천사들의 의지와 타락
 - > 악의 실재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한 만물 창조를 설명할 수 있게 됨
- 4) 악이 '사물' 이라는 뜻은 아니다 (마니교의 악은 '원리' 라고 표현. '하나의 결정, 경향 혹은 선의 부정')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■ **어거스틴과 도나투스주의**

-- 문제: 존경 받을 만하지 못한 감독이 집례한 성직 임명
또는 성사의 유효성

-- 답: 교회의 어떤 예식(성사)도 이를 집전하는 인간의
덕성에 의존하지 않는다

※ 세례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끊임 없는 회의와
의심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

-----> 예식 자체의 유효성

※ 교회의 성례의 유효성에 관한 서방교회의 규범이 되다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■ **어거스틴의 정전론**

-- 급진적 도나투스파 (키르쿨렐리온)

-- 사회적 경제적 동인을 갖고 있지만
악탈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

-- 정전(정당한 전쟁)론

1) 목적이 정당

2) 올바르게 구성된 권위 있는 조직체에 의해 수행

3) 폭력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동기가 중심이 되어야

※ 정전론의 결과: 오용과 남용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■ **어거스틴의 펠라기우스**

-- 문제: 1)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되
악의 기원이 우리 의지 안에 있다 (=어거스틴)

2) 인간이 항상 그들의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
능력을 소유했다 (≠어거스틴)

-- 답: 1) 의지가 항상 자신의 주인은 아니었다

2) 죄의 세력이 장악하는 한 의지를 통솔할 수 없다

3) 최고의 경지: (무엇인가를) 원하는 의지행위와
원하지 않는 의지행위 간의 투쟁

= 의지의 무력함을 보여줄 뿐 = 죄인

(자유의지 부정하는 것이 아님)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4) 개방되어 있는 않는 하나의 길은
 --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

※ ※ **구속이전의 자유: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만 존재**
 _____:

:

(가 가

)

**5) 현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
 없듯이 천국에서는 죄를 상상할 수 없다**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6) 그러면 회심의 순간은 어떤 자유인가?
 !! 은혜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!!
 !! (그래서) 은혜는 불가항력적!!
 !! 하나님은 예정된 자들에게만 그것을 주신다!!

--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

--- 인간에게는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을 완전한
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

-- (따라서) 원죄는 존재하지 않으며

-- (따라서) 어린아이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
 라

죄를 짓도록 결정하기 전에는 죄가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■ **529년 오렌지 종교회의**

-- 어거스틴의 교리 공식화
 “불가항력적 은혜와 예정에 관한 이론”

-- 반대파: 신앙의 시초가 인간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
 우선적 행동이라는 어거스틴의 교리에 반발

■ **어거스틴과 <신의 도성>**

-- 집필 의도: 하나님의 도성만 남는다
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

-- 16세기 프로테스탄트들의 어거스틴에 대한 이해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